

#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이중근\*, 최수빈\*\*, 박아현\*\*, 오가영\*\*, 우선영\*\*, 이현\*\*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e-mail:gh1511@daum.net

## Effect of college life adjustment and stress due to COVID-19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ung-Geun Lee\*, Soo-Bin Choi\*\*, Ah-Hyeon Park\*\*, Ka-Young Oh\*\*, Sun-Young Woo\*\*, Hyeon Lee\*\*

\*Dept.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Yeosu University

\*\*Dept. of Nursing Student, Yeosu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코로나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으로 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평균 2.22±.54점, 스트레스 평균 3.51±.63점, 간호전문직관 평균 3.34±.47점이었다. 또한 변수들 사이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학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19.8%의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대학교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이하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째 장기화되었다. 일명 코로나학번이라고 칭하는 2020년, 2021년 대학 신입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학번 대학생은 대학에서 여러 집단에 속하며 경험할 수 있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대학이 아닌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1].

간호대학생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간호학의 특성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 더 많은 공부량이 요구되며 실습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실습을 하는 동안 대상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간호 과정을 수행할 경우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2], 실습 기간 동안 부여되는 많은 양의 과제와 업무 등은 간호대학생에게 큰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이미 많은 자료들에서 임상실습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이로 인해 실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간

호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 간호학을 전공하는데 깊은 회의감을 느끼는 간호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다[3].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 내에서 대인관계 또는 학업과 관련된 생활과 대외 활동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이다[4].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은 경우에는 학업스트레스가 많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반면,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고[5], 주로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6]. 대학생활적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이 있다[4].

스트레스란 사전에 명시되어 있듯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느끼게 되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이며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같은 신체적 질환의 원인이 되고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기도 한다[7]. 스트레스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인간의 삶에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관

점이 일반화되고 있다[8]. 간호대학생은 대학을 다니며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학점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실습 또한 병행하고 있어[9], 대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임상실습을 하며 얻는 스트레스 두 가지를 크게 경험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은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생에 비해 과도한 양의 학업과 실습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실제 환자를 만나 실습을 하므로 실수를 하면 안된다는 부담감을 함께 가지고 있다[10]. 게다가 처음으로 하는 임상실습은 가장 심각한 불안과 큰 긴장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배정받은 업무와 보고서 작성, 맡은 역할의 갈등과 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3].

간호전문직관이란 간호사의 개인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며[12],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와 간호에 대한 관념, 신념, 인상의 총합으로 정의된다[13]. 또한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면 간호업무수행능력과 재직의도가 높아지고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14]. Geiger 등[15]은 간호전문직관이 지속적인 개인의 직업생활과 공식적인 교육 기관을 통하여 발달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외적, 조직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조직 외적 요인으로는 연령, 학교 교육과 계속교육, 결혼상태, 자녀의 수 및 연령, 성별 등이며, 조직적 요인으로는 근무부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조직의 정확과 전문직에 대한 신념이 포함된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 교육을 받는 동안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실무경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달하며[16, 17],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효과적으로 확립되는 시기는 학교의 기본교육을 기초로 졸업 후 3~5년 사이이다[18]. Kang 등[19]에 의하면 간호전문직관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게 될 때, 간호업무가 사소하고 가치없는 것이라는 자의식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따른 갈등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할갈등은 전문직에 관한 자부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위축감이 유발되어 결과적으로 간호현장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질적 간호에도 지장을 주게 되어 간호사 개인 뿐만 아니라 간호전문직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20]. 간호전문직관과 대학생활적응 등 2개씩 연관 지은 자료는 있지만 3개씩 연관된 자료는 없어 큰 개념들을 연관 지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

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고 진로 결정과 취업에 놓인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여,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본론

###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8월 15일에서 2022년 9월 15일까지 G도 소재의 2개 4년제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에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의사는 자발적 서면동의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총 142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35명 이었다.

### 2.3 연구도구

#### 2.3.1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의 측정을 위해서 Baker[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도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21]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생활적응의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적응, 대학환경 적응 문항으로 총 4가지 하위척도를 기준으로 6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현진원[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 2.3.2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해서 유지수 등[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의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임상차원 스트레스, 대학차원 스트레스의 총2가지 하위척도를 기준으로 5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지수[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4이었다.

### 2.3.3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 측정을 위해서 윤은자 등[22]이 개발한 도구를 김명자[23]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전문직관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전문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계의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의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명자[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8이었다.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은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5)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 차이

코로나 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286, p=.012). 간호전문직관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하나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간호전

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F=-2.621, p=.008), 학년은 사후 검정결과 4학년과 3학년이 2학년, 1학년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612, p=.001). (Table 1).

### 3.2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2.22±.54점이었고,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51±.63점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34±.4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Nursing students' adjusting to college lif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Mean±SD	Range
adjusting to college life	2.22±.54	1~5
stress	3.51±.63	1~5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3.34±.47	1~5

### 3.3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우울,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스트레스(r=-.432, p=.002)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관(r=.464, p<.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간호전문직관(r=-.214,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adjusting to college lif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adjusting to college life	stress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adjusting to college life	1		
stress	-.432 (.002)	1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464 (<.001)	-.214 (.001)	1

### 3.3 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년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2.119로 2와 가깝고 0이나 4와 멀어져 있으므로 잔차 독립성을 만족하

였고, 변인 간의 공선성 검정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802으로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3.274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학생활적응( $\beta=0.164, p=0.001$ ), 스트레스( $\beta=0.506, p=0.004$ )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설명력은 19.8%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Spec.	B	SE	$\beta$	t	p
Constant	1.982	.318		2.048	
Gender	-.264	.069	.369	-6.549	.298
Degree	.345	.435	.543	1.920	.104
adjusting to college life	.198	.084	.164	1.648	.001
stress	-.221	.027	.506	-3.249	.004
Adjusted R <sup>2</sup> =.198 F=14.194( p<.001)					

Table 1. Differences between adjusting to college lif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epression		stress		adjusting to college life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2(23.8)	2.23±.49	-2.408 (.265)	3.14±.59	.512 (.805)	3.35±.63	-2.621 (.008)
	Female	103(76.2)	2.14±.51		3.80±.64		3.31±.59	
Religion	Have	34(28.0)	2.23±.53	2.17 (.182)	3.43±.54	3.285 (0.922)	3.38±.48	13.183 (.336)
	Not have	21(17.3)	2.19±.55		3.57±.69		3.32±.45	
Degree	1-yearb	39(28.8)	2.28±.52	0.548 (.217)	3.53±.68	6.286 (.012)	3.18±.64	6.612 (.001) c>b>a
	2-yearb	36(26.6)	2.23±.61		3.42±.61		3.25±.42	
	3-yearc	29(21.4)	2.16±.64		3.49±.58		3.39±.43	
	4-yeard	31(23.2)	2.14±.50		3.50±.63		3.46±.45	
Residence type	with parents	73(54.0)	2.24±.54	-1.420 (.159)	3.64±.59	-3.249 (.508)	3.38±.54	1.296 (0.555)
	lodging	40(29.6)	2.16±.48		3.41±.62		3.32±.51	
	dormitory	22(16.4)	2.18±.54		3.59±.63		3.29±.47	
GPA	2.99a ≥	29(21.4)	2.29±.55	-1.605 (.154)	3.48±.64	-1.11 (0.352)	3.30±.50	2.164 (.293)
	3.0 ≤ 3.99	83(61.4)	2.16±.42		3.51±.60		3.28±.47	
	4.0 ≤	23(17.0)	2.24±.40		3.53±.63		3.34±.53	

GPA=grade point average

References

[1] Yang HJ. Responding to negative emotions in COVID-19.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20;6(3): 135-143.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0.6.3.135>

[2] Seyedfatemi, N., Tafreshi, M., & Hagani, H. (2007). Experienced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Iranian nursing students. BioMed Central Nursing, 6(11). Retrieved November, 13, 2007 from Web site: <http://www.biomedcentral.com>

[3] 황성자 (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05-213

[4] Baker, R W. & B. Siryk(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1: 179-189.

[5] 고명주·최보영(2017),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4(6): 81-104.

[6] 손향신·유태용(2011), "개방성, 외향성, 핵심자기평가가 변화몰입과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2): 281-306.

[7]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none>

[8] 신숙희(2017). 스트레스이론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유지수,장수정,최은경,박지원 (2008).한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대한간호학회지,38(3).410-419

[10] 이윤정,권정순,유수정 (2003).죽육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피로로 경감에 미치는 효과.한국간호교육학회지,9(1),94-102

[11] 이해숙 (2008).향기 흡입법이 간호 대학생의 첫 임상 실습 전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1), 112-119

- [12] Han SS, Kim MH, Yun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e Education. 2008;14(1):73-79.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73>
- [13] 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005;35(6):1091-1100.
- [14] im MR. Clinical nurses' professionalism, nursing performance and intention of retention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08
- [15] Geiger, L. W. K. & Davit, J. S.(1988).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e Manage. 19. 50-58.
- [16] Go, S. H. & Jung, B. L.(2004).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3). 335-344.
- [17] Weis, D. & Schank, M. J.(2000).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 Nurse Scholarsh. 32(2). 201-204.
- [18] Cho, K. J. & Paik, S. N.(2004). Comparing nursing perspective between BSN and RN-BSN program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10(4). 417-425.
- [19] Kang, H.S., Hong, K. J, Tag, Y. L, Pa7], H. L., Kwag, W. H, Kim, J. E., Choi, J. L. & Kim, K. S.(2002). The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Health of Women Who Work in the Professional Job.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32(4). 570-579.
- [20] Kim, K. B., Kim, H. S. & Lee, K. H.(2001). Clinical nurse's professional conflic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3). 492-505.
- [21] 현진원,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22]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005) 간호전문직관 측정 도구 개발. Journal of Korean Acadery of Nursing, 35(6), 1091-1100
- [23] 김명자(2010). 임상간호사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지식, 인지도 및 실천정도.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